

-sol 3) 조건을 식으로 옮겨적을 때

조건을 식으로 옮겨 적을 때도 실수가 잘 발생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. 특히 (가) (나) 조건형으로 나온 문제 중 (나) 조건을 옮길 때 많이 나옵니다. 아래 예시 2번 2017학년도 수능 문제를 통해 어떤 실수인지를 알아보시다.

예시 2)

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$\{a_n\}$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

때, a_2 의 값은?

(가) $a_6 + a_8 = 0$

(나) $|a_6| = |a_7| + 3$

① -15

② -13

③ -11

④ -9

⑤ -7

일단 (가) 조건을 보면 많은 분이 문제없이

$$a + 5d + a + 7d = 0$$

$$2a + 12d = 0$$

$$a = -6d$$

라고 풀어주셨을 것입니다.

다음으로 (나) 조건식을 쓰려고 하는데, 저런. 이렇게 쓰고 맙니다.

$$|a + 6d| = |a + 5d| + 3$$

보시면 a_6 과 a_7 을 바꿔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.

이런 황당한 실수의 주인공이 되신다면 피눈물 나시겠지요?

조건을 그냥 옮겨 적는 것 뿐인데 왜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일까요?

조건을 옮겨 적는 것은 식을 정리하거나 계산하는 일보다 상대적으로 쉽습니다. **그러다보니 방심하게 되어 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** 특히 (나) 조건 같은 경우에는 (가) 조건을 해석한 이후에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더욱 방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따라서 **조건을 옮겨 적을 때는 포인팅 풀이를 하면서 옮겨 적는 것을 추천합니다.**

포인팅 풀이라는 것은 손가락으로 문제에 있는 조건이나 선지를 가리키면서 푸는 방법입니다. 즉, 글씨를 쓰지 않는 나머지 손으로 조건을 가리키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는 글씨를 쓰는 풀이입니다. 일대일 대응을 할 수 있고, 두 손을 쓰는 만큼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할 위험이 훨씬 적습니다.

(나) 조건을 포인팅 하면서 식을 쓰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.

1. (나) 조건의 $|a_6|$ 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$|a+5d|$ 적기.
2. (나) 조건의 $|a_7|+3$ 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$|a+6d|+3$ 적기.

물론 (나) 조건뿐만 아니라 (가) 조건 또한 포인팅 하면서 식을 쓰게 된다면 실수할 확률이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.

이 포인팅은 호흡이 긴 문제. 즉, 28번, 29번 문제나 19번, 20번 문제에서 활용하는게 효과적입니다. 방심하지 않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호흡을 끊어주는 효과도 같이 가져오기 때문이죠.

정리
 PROBLEM) 조건을 잘못 옮겨 적어 발생하는 실수

SOL 3)
 ① 한 손으로 문제 조건을 가리킨다.
 ② 나머지 한 손으로 그에 맞는 식을 쓰면서 풀이를 진행한다.